



## 1. 정책 서민금융상품 분야

◆ '08년 미소금융을 시작으로, 4대 상품(미소금융·햇살론·새희망홀씨·바꿔드림론)을 포함하여 '17년말까지 총 37.5조원(575.6만명) 지원

□ 저신용·저소득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'08년부터 서민금융상품을 정책적으로 도입

○ 개별 수요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출시된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그간 지원요건 통일·완화, 금리인하 등의 과정을 거쳐 現체계 형성

### <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주요내용 >

구분	미소금융('08~)	햇살론('10~)	새희망홀씨('10~)	바꿔드림론('08~)
재원	휴면예금, 기부금	복권기금 금융회사출연금	은행권 자체 수익	행복기금 수익금
용도	창업·운영자금	생계자금	생계자금	고금리 대환자금
지원 대상	6등급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	6등급 이하(&연소득 45백만원 이하) 또는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		
금리	연 4.5% 이하	연 10.5% 이하		
한도	창업 7천만원 운영 2천만원 등	생계 1.5천만원 대환 3천만원 등	생계 3천만원	대환 3천만원
실적(~'17)	2.6조원	14.1조원	14.7조원	2.6조원

□ 정책 서민자금 공급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'17년에는 연간 약 7조원(71.4만명) 공급

\* 공급액(조원) : ('10) 3.3 → ('12) 3.7 → ('14) 4.5 → ('16) 5.1 → ('17) 7.0

➡ ①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민간 시장상품(사잇돌 포함) 중간에 위치하여 민간 서민금융상품과 중복·시장 왜곡하는 문제 해소

### < 상품별 이용자 신용등급 분포(KCB 기준) >
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상호금융 사잇돌	1.6	3.7	10.6	19.7	26.9	22.7	14.3	0.5	-
저축은행 사잇돌	0.1	0.5	1.5	4.0	11.0	23.4	51.7	7.6	0.1
햇살론	0.3	0.8	2.4	5.7	13.7	23.6	39.3	13.1	1.0

\* 사잇돌은 출시(저축은행 '16.9월, 상호금융 '17.6월)이후 공급분, 햇살론은 '16~'17년 취급분 기준

② 복잡·중복 상품구조, 공급량 목표설정 등 공급자 위주 운영 개선

## 2. 채무조정 분야

- ◆ 국민행복기금,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\*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

\* 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(만명) : ('11) 126 ('13) 108 ('15) 103 ('18.3월) 95

- 국민행복기금 등 채권매입형 기구(매입·채무조정)를 통해 '04년부터 '17년말까지 연체자 약 189.9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
- 신용회복위원회는 상시적 채무조정 기구로서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 금융회사(5,285개) 채무의 채무조정 지원
  - '02년 설립 후 '17년말까지 총 144.3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(개인워크아웃 132.1만명, 프리워크아웃 12.2만명)
  -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신용상담·신용교육\*, 개인 회생·파산 신속 연계지원(Fast-track)\*\* 등 신용회복 지원제도 운영
    - \* ('02~'17년말) 신용상담 697.6만명, 신용교육 475.8만명 지원
    - \*\* 서류준비·비용지원, 전담 재판부 운영 등 ('13.5~'17년말) 약 35백명 연계 지원
- ※ 공적 채무조정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·파산제도 운영 중 ('04~'17년말까지 약 197.3만명이 개인회생, 파산을 이용)

- ➡ ①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 단축(5년→ 3년, '18.6.13부터~)에 따른 제도간 균형 및 신복위 제도의 실효성 제고
- ② 지나치게 긴 상환기간(최대 10년), 제한적인 감면율(최대 60%), 늦은 워크아웃 신청(연체 후 평균 41개월) 등 운영구조 개선

### 3. 제도 및 전달체계 분야

◆ '16년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었고, 현재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중

-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'16.9.23일 시행)에 따라 정책 자금공급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\*이 설립되었고, 개인 채무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\*\*가 법정 기구화

\* (구)휴먼에코법에 따른 휴먼에코관리재단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확대·개편

\*\*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었던 신복위가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

- 오프라인 전달체계로서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서민금융종합·상담센터, 미소금융 지점 등을 운영

- '18.6월 현재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64개\* 서민금융 종합·상담센터 등 총 107개의 서민금융 지원센터 운영 중

\* 지자체 내 12개소, 고용복지+센터 내 51개소, 금감원 내 1개소

-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으로, 은행(6개)·기업재단(5개) 및 지역법인(27개) 총 38개 법인(170개 지점), 16개 민간 사업수행기관, 496개 전통시장 상인회 등 총 550개 기관\*(누적)에서 사업수행

\* 현재 대출 취급중인 곳은 총 422개소(법인 38, 민간 사업수행기관 9, 전통시장 375)

- 온라인 전달체계인 맞춤형대출 서비스((구)이지론),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,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 등 운영 중

➡ ① 기구 통합(진흥원, 통합지원센터)의 시너지 효과 확대

② 중복·복잡한 전달체계 정비 및 사업수행기관의 자율성·책임성 강화 추진

## 4. 자원 분야

- ◆ 휴면예금·보험금, 기부금, 복권기금·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 
재원으로 활용하여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중

□ 정책 서민금융상품 마다 특정 재원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

- (미소금융) 기부금은 기업·은행재단 및 지역법인, 휴면예금  
이자수익은 민간 사업수행기관 등에 배분하여 사업 수행
- (햇살론) 복권기금 및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 
보증재원을 조성하고,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에서 대출 취급
- (바꿔드림론) 국민행복기금 수익금을 재원으로 국민행복기금이  
보증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 취급
- (새희망홀씨) 은행권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공급

□ 現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은 '한시적·분절적'으로 지속적인  
공급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

- 기부금 출연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며, 휴면예금은 소멸시효  
관련 대법원 판례('12년), 어카운트인포 영향 등으로 출연금액 급감\*
- \* '13년부터 출연 중단되었으나, 약관 개정('16.11월)으로 '27년부터 정상화 예상
- 복권기금은 '20년까지만 출연이 예정되어 있고('16~'20년, 매년 1,750억원),  
금융회사 출연금도 총 9천억원 한도 도달시('24년 예상) 출연 종료
- 행복기금은 추가적인 채권매입 없이 잔여채권 시효완성시 종료 예상

➡ ① 한시적인 정책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

② 칸막이식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재원운용의 효율성 제고

## □ 민간위원 총 9명

성명	現 소속·직위	주요경력
이종수	한국사회투자 이사장	現 금발심 서민분과위원장
박창완	정릉신탁 이사장	現 금발심/前 혁신위원
남주하	서강대 경제학과 교수	前 금발심 위원
최현자	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	現 서민금융협의회 위원
조성목	서민금융연구원 원장	前 금감원 서민금융실장
문영배	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	現 금발심 위원/ 前 NICE평가정보연구소장
김관기	김·박 법률사무소 변호사	前 제주지법 판사
박창균	중앙대 경영학부 교수	現 금발심/前 혁신위원
구정환	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	現 중소서민금융연구실장